전통 색실누비 기법의 현대적 활용에 관한 연구

이 미 석

한남대학교 의류학과 강의전담교수

A Study on Modern Applicability of Traditional Colored Thread Quilting Technique

Mi Seok Lee

Lecturer Professor,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nam University

(received date: 2014. 12. 8, accepted date: 2015. 2. 20)

ABSTRACT

Colored thread quilting is sewed up padded with *Han-Ji* (한지, korean paper) string using colored thread. This showed up geometric pattern with repeated line of straight, diagonal, curve. According to geometric pattern, Colored thread quilting showed visual effec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anufacturing techniques, kinds, use, shape of traditional colored thread quilting. furthermore, This study has produced fashion items that can be used in modern life by using techniques of colored thread quilting.

According to the fashion items, It present succession and utilization of techniques of colored thread quilting.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It studied traditional colored thread quilting techniques through the documents consideration, previous researches and by surveying antiquity in the museum. 2nd, It tried to make a reproduction about techniques of traditional colored thread quilting. 3rd, This study has selected and developed item and design of fashion items that can be used pragmatically in modern life by using techniques of colored thread quilting.

And Fashion items that have been produced in this study is a total 10 kinds that was composed of Vest 4ea, Pendant & Brooch 6ea.

Colored thread quilting is a unique technique of thread quilting that combines powerful practicality with decorativeness only in Korea.

These technique hope that it can developed more variety of items in modern life.

Key words: colored thread quilting(색실누비), fashion items(패션소품), *Han-Ji* string(한지 끈), Ssamzie(Pouches, 찜지)

I. 서론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는 계절에 따라 옷을 짓는 소재가 달랐으며, 그 소재에 따라 바느질법 또한 달라지는 섬세한 복식문화를 이루어왔다. 여름에는 홉옷을 지어 입었고, 겨울에는 솜을 두어 홉옷을 지어 입었으며, 봄·가을에는 겹옷을 지어 입는 슬기로운 지혜를 보였다. 특히 겨울철에는 추운 기후에 적응하기 위한 방편의 하나로서 천과 천 사이에 솜을 넣게 되었고, 다시 솜의 고정을 위해 징그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어 독특한 바느질법이 생겨났는데 이것이 곧 '누비' 이다.

이러한 누비기법은 의복 소재로서의 활용 뿐 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복식과 장식소품, 생활소품 등에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 수직평행선으로 줄줄이 누비는 형태의 줄누비는 누비의 기본 형태로 복식류에 사용되었고, 장식적인 문양이 들어간 누비는 생활소품에 사용하였다.

최근에는 누비의 실용적인 기능에 장식 목적의 미적기능이 더해져서 복식 이외에 여러 패션상품에까지 수공예적 기법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누비, 즉 '기우는 형식'의 바느질 기법은 어떻게 기우느냐에 따라 직물 표면에 예술적 가치를 부여하고 실용성을 높이는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다.

보통 천과 천 사이에 솜을 넣어 보온성을 살리는 누비와 달리 안에 한지 끈을 넣고 색실을 사용하여 아름답고 화려한 무늬를 만들어 내는 색실누비는 쌈지, 안경집, 바늘꽂이, 보자기, 아암 등 작은 생활소품을 만드는 데 주로 쓰였는데, 바느질 차원을 벗어나 미적 조형의 단계로 발전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색실누비 기법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우리 고유의 침선 기법중의 하나로, 색실누비의 독창적인 기법과 미적 가치를 고찰하여 현대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으로 개발하여 계승,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전통 색실누비 기법을 재현해보고, 색실누비 기법을 활용하여 현대 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패션소품을 제작하여 한국 전통 색실누비기법의 계승과 활용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색실누비 기법에 대한 선행연구 및 문헌고찰과 박물관 소장유물 조사를 통하여 전통 색실누비 기법에 대해 알아본다. 둘째, 전통 색실누비 기법을 재현 한다. 셋째, 색실누비 기법을 활용하여 전통미를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일상생활에서 많이 활용 할 수 있는 색실누비 아이템과 도안을 선정 하여 실제 작품으로 제작한다.

II. 전통 색실누비

1. 누비(縷緋, 縷飛)

누비에 대한 정의로, 이희승¹⁾, 박성실²⁾, 이주원³⁾, 홍명화·남윤자⁴⁾는 누비란 '안팎을 맞춘 피륙사이에 솜을 두고 줄이 죽죽지게 바느질을 촘촘히 하는 홈질로서 누비로 쓰는 것은 파음' 이다 라고 하였으며, 김영숙⁵⁾은 누비란 ' 겹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넣고 줄줄이 홈질 하는 바느질법' 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경민⁶⁾은 누비란 '안팎의 두장의 피륙사이에 부속물을 첨가하거나 첨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복된 바느질법으로 일정한 간격의 줄이 죽죽지게 형성된 상태를 말한다. 이때 부속물에는 솜 혹은 저주지, 닥종이, 동물의 털 등이 있으며, 바느질법은 홈질, 박음질 등이 있다' 라고 정의 하였으며, 김해자·유선희⁷⁾는 누비란 '안팎을 맞춘 두겹의 옷감 사이에 솜이나 종이나 같은 충전재를 두거나 또는 두지 않고 곧은 줄이 지도록 촘촘하게 홈질 또는 박음질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문헌에 나타난 '누비'의 최초 기록으로는 「三國志魏書」와 「後漢書 東夷傳 濊條」에서 볼 수 있다. '부족 국가 동예의 여인들은 고(袴)를 입지 않았으며 비단에 솜을 놓아 누빈 준의(縛衣)를 입었는데 그 모양이 첨유(檐褕)와 비슷하다'⁸⁾ 는 기록에서 누비의 초기 형태를 짐작할수 있다. 이후 누비옷의 형태를 볼 수 있는 자료로는 고구려 고분 감신총 벽화에 있는 무사가 입은 누비갑주(縷緋甲冑)⁹⁾라 하겠는데, 여기서 보면 윗몸을 감싼 갑옷 전체가 사선과 횡선으로 누벼져 있어서 누비가 방한용 뿐만 아니라 호신용

으로도 사용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신라 천마총에서 발견된 천마도장니(天馬圖障泥: 마구장식에 그려진 장식화)와 안욕(鞍褥: 안장깔개)등의 유물을 통해 삼국시대 누비기법의 사용을 알수 있다.¹⁰⁾

또한 지봉유설에는 ‘계림지(鷄林志)’에 이르기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의 입기를 즐기는데 이것은 처음 승가(僧家)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¹¹⁾

조선시대로 들어오면서 누비의 용도는 더욱더 다양해져 복식류 뿐만 아니라 침구류와 보(褌), 찜질, 안경집, 아암 등의 생활소품이 누비로 만들어졌다.

이렇듯 누비는 우리나라 전통 바느질법의 일종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으며 그 기법과 재료의 발달과 함께 장식의 역할까지 겸하면서 성행하였다. 그 전통은 현대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누비는 보온과 보강, 장식에 따라 누비 간격, 누빈 형태, 봉제방법등 기법이 다양 하다. 이러한 누비의 종류를 보면, 궁중발기(宮中發起)에는 오목누비, 잔누비, 납작누비, 중누비, 세누비로 구분하고 있고, 역어류해(譯語類解)에는 ‘납행(納行)’을 통칭 누비라 하고, 분행(分行)·납적(納的)은 잔누비, 행적(行的)·촌행(寸行)을 드문누비¹²⁾라 하고 있다.

또한 궁중발기에는 복식류에 누비, 잔누비, 세누비가 있고, 침구류에 오목누비, 중누비, 잔누비, 납작누비 등의 기록이 보이고 있다.¹³⁾ 아언각비에는 세누비는 잔누비, 세납 이라고 하고 박아짓는 답질(畝紵)이라 하고 있다.

이와같이 조선시대 문헌에 나타난 누비 관련 기록들을 살펴보면 누비간격에 따라 잔누비(세누비), 중누비, 드문누비로 구분되며 누빈형태에 따라서는 오목누비, 납작누비로 구분된다.

박성실¹⁴⁾,이주원¹⁵⁾은 누비의 종류를 누비간격에 따라 잔누비(세누비), 중누비, 드문누비로 나누고, 누빈형태에 따라 오목누비와 납작누비로 나누며, 봉제방법에 따라 홉질 누비와 박음질 누비로, 솜의 첨가유무로 솜누비와 겹누비로 나누고 있다.

그러나 홍명화·남윤자¹⁶⁾는 누빈 형태에 따라 볼록누비, 오목누비, 납작누비로 나누고 있으며, 최인

진¹⁷⁾은 잔누비, 오목누비, 중누비, 납작누비, 상침누비, 색누비로 나누고 있다.

볼록누비, 상침누비, 색누비 등의 명칭들은 조선시대 문헌기록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누비 명칭 들로 볼수 있는데 이는 후대 새롭게 생겨난 명칭으로 연구자들마다 각각의 명칭에 대한 정의를 다르게 하고 있어 누비기법과 명칭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특히 오목누비와 볼록누비, 납작누비에 대해 다른 견해들을 볼수 있었다.

오목누비에 대한 견해로 박성실¹⁸⁾은 ‘솜의 두께가 손으로 만져서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얇고, 누비줄이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사이사이에는 볼록하게 나온 입체감을 느끼게 하고 있으며, 실제로 살짝 잡아 다뤄보면 신축성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안쪽은 홉질한 바느질선에 약간의 풀을 가해 다림질한 상태로 가느다란 주름형태가 나타나 있다’고 하였다. 홍명화,남윤자¹⁹⁾는 ‘솜을 넣지 않고 천과 천을 맞붙여서 누빈것으로 안쪽에서 누빈선에 풀을 먹여서 다림질로 꺾어 오목한 효과를 낸 것’ 이라고 하였다. 이희승²⁰⁾은 ‘두터운 솜옷이나 이불에 줄을 굵게 잡아 골이 깊게 된 누비형태’ 라고 하였으며, 허동화²¹⁾는 ‘주로 두터운 솜옷이나 이불 등에 쓰였는데, 누비 골이 넓고 깊게, 즉 오목하게 되어서 붙여진 이름’ 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주원²²⁾은 ‘솜을 두툼하게 두고 누벼서 오목오목한 누비줄이 선명하고 그 사이사이에는 볼록하게 나와 입체감을 느끼게 한다’ 고 하였으며, 최인진²³⁾은 ‘말고랑 형태로 솜을 두어 뽕뽕히 누빈것을 응용한것으로 솜을 두툼게 두고 누벼서 오목오목한 누비 효과를 나타낸 것’이라고 하였다.

볼록누비에 대한 견해로는 홍명화,남윤자²⁴⁾는 ‘솜을 넣어서 누빈 일반적인 누비’ 라고 하였으며, 이은주²⁵⁾는 ‘솜을 넣어 홉질 한 것이며 솔기 누비는 12~25cm의 간격이 넓은 누비로 겹옷을 만든 후 겹감과 안감의 옷감이 밀리지 않도록 솔기부분과 솔기와 솔기사이를 홉질한 것’이다.

납작누비에 대한 견해로는 이경민²⁶⁾은 ‘전체 누비형태가 납작한 형태로 솜을 두지 않고 안,뒤편 두겹의 피륙으로만 누빈 것으로 평면적’ 이라고 하였으며, 이은주²⁷⁾는 ‘보온과 견고함이라는 실용적 목적 보다

는 세로줄무늬의 미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것' 이라고 하였다.

또한 허동화²⁸⁾는 '숨을 두지 않고 실밥이 도드라지게 누비는 것' 이라고 하였으며, 이주원²⁹⁾은 '숨을 넣지 않고 안팎감 두겹만을 누웠거나, 숨을 아주 얇게 두고 누빈 것으로 입체감이 없고 실이 겹으로 도드라지는 것이 특징' 이라고 하였다.

최인건³⁰⁾은 '숨을 넣지 않고 안감과 겉감만을 누웠거나, 아주 얇게 숨을 두고 넓은 공간에 고랑을 만들기 위해서 누비 안쪽에 꼴칠을 하여 가늘고 뽕죽한 인두로 압력을 가하여 누비표면과 동일하게 흡이지게 하는 것' 이라고 하였다.

누비의 대표적인 용도로는 방한용으로 추운 겨울철 천과 천 사이에 숨을 넣고 바느질하여 보온의 효과를 주었으며, 보강용으로 직물을 오래 사용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누비 사용하였다. 또한 누비는 호신용으로 사용되었는데 전쟁시 착용하는 갑주에 누비를 사용하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이렇듯 누비는 처음 방한, 보온과 보강의 실용 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점차 장식성이 강조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누비의 형태 및 간격, 누비실의 색상, 누비 땀의 간격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주고 있는데, 특히 짚지, 안경집, 수저집, 버선본집, 야암 등은 실용적 목적 이외에 누비를 이용하여 장식성을 강조한 것을 볼 수 있다. <Fig. 1-28>

따라서 본 연구의 주제인 색실누비 역시 실용성 외에 장식성이 강한 누비기법으로 누비에 있어서 공예적인 요소를 가장 많이 담고 있다고 하겠다.

2. 색실누비

1) 색실누비 형태

현재 가장 많이 전하는 색실누비 유물은 각종 짚지들이다. <Fig. 1-18>

작은 물건들을 넣어서 지니고 다니던 누비짚지는 잘게 썬 살담배나 앞담배를 넣어 다니는 담배짚지와 부싷돌과 부시, 부싷깃 등을 넣고 다니는 부시짚지가 대표적이다.³¹⁾ 담배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은 조선

중기 광해군 때로 담배를 잘게 썰어 대통에 넣고 피웠기 때문에, 썬 담배를 짚지에 담아 허리띠에 차고 다녔다. 성냥이 없던 당시에는 부싷돌로 부싷깃을 놓고 부싷쇠로 마찰시켜 불을 피웠으므로 이들을 누비 짚지에 담아 가지고 다녔다.

부시짚지는 <Fig. 15>³²⁾와 같이 대개 장방형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 주머니가 3~4칸으로 나뉘어 있으며, 접어 둘둘 마는 형태로 되어있다. 색실누비 짚지는 기존의 주머니와는 그 형태부터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누비 짚지는 <Fig. 2-8>, <Fig. 14-16>등과 같이 평상시에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접어 사용하며, 안쪽의 주머니는 <Fig. 1>, <Fig. 10>³³⁾, <Fig. 12>, <Fig. 13-15>, <Fig. 17>과 같이 용도에 따라 자유롭게 구성했다.

한지 끈을 넣어 촘촘하고 골 지게 누비 견고하고 유용하게 사용했던 색실누비 짚지는 정성스러운 바느질과 개성 있는 문양을 이룬다.

<Fig. 6>의 짚지 유물에서는 겉감 천이 남아 한지 끈이 드러난 형태를 볼 수 있으며, <Fig. 9>의 짚지 유물에서는 한지 끈을 겉감과 안감 사이에 넣어 누비한 것을 볼 수 있다.

색실누비 유물은 대부분 19~20세기 것으로 누비의 형태는 -, □, +, ×, * 등의 형태를 기본선으로 하여 직선, 사선, 곡선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구성한다. <Fig. 1-28>

누비로 만든 옷이나 침구류가 숨을 넣어 방한성에 치중한다면, 한지 끈을 넣어 누비는 색실누비는 높은 내구성과 기능성을 가진다. 천과 천 사이에 넣는 한지 끈은 질기고 오래가며 통풍성과 습도 조절 능력이 뛰어나다. 때문에 담배나 부시 등 습도에 민감한 물건을 보관하는 짚지를 만드는데 적합하며, 오래도록 견고하게 사용해야 하는 생활용품에 유용한 소재이다.³⁴⁾

<Fig. 1>의 짚지는 흰색 무명천에 세 가지 색상인 적, 백, 청의 색실로 적색 3줄, 백색 3줄, 청색 3줄로 + 형태로 누비 졌다. 안쪽에는 두 칸으로 구성되어 자수가 놓여 있으며, 부싷돌을 넣어 보관했던 작은 짚지도 보인다.

<Fig. 13>은 흰색, 노랑, 분홍, 청색, 자주 등의 색

〈Fig. 1〉 Ssamzie, 19C
- *Our Kyubang Culture*,
p. 312

〈Fig. 2〉 Ssamzie, 19C
- *Pouches for Storing Luck*,
Ju-meo-ni & Ssamzie, p. 120

〈Fig. 3〉 Ssamzie
- *Old pouches of Korea*,
p. 167

〈Fig. 4〉 Ssamzie, 19C
- *Pouches for Storing Luck*,
Ju-meo-ni & Ssamzie, p. 118

〈Fig. 5〉 Ssamzie, 19C
- *Pouches for Storing Luck*,
Ju-meo-ni & Ssamzie, p. 132

〈Fig. 6〉 Ssamzie, 19C
- *Pouches for Storing Luck*,
Ju-meo-ni & Ssamzie, p. 136

〈Fig. 7〉 Ssamzie, 19C
- *Pouches for Storing Luck*,
Ju-meo-ni & Ssamzie, p. 135

〈Fig. 8〉 Ssamzie, 20C
- *The Old and New*, p. 20

〈Fig. 9〉 Ssamzie, 19C
- *Pouches for Storing Luck*,
Ju-meo-ni & Ssamzie, p. 85

실로 ㄷㄷ형으로 곱게 누벼 장식했는데 단순한 반복 무늬가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 준다.

〈Fig. 1-6〉, 〈Fig. 10〉, 〈Fig. 11〉³⁵⁾, 〈Fig. 12〉는 가운데 +형태, 가장자리 -형태를 기본선로 돌아가며 자연스러운 기하학무늬를 형성하며 색실로 누벼졌다. 〈Fig. 14〉³⁶⁾, 〈Fig. 18〉³⁷⁾은 *, x, -형태를 기본선으로 하여 누벼지면서 자연스럽게 기하학

무늬로 나타난다.

〈Fig. 4〉는 소색 명주에 소색실로 누볐고, 〈Fig. 5〉는 검정색 명주에 소색실로 누벼져 색실이 아닌 단색실로 장식 누비 한 것을 볼수 있다.

〈Fig. 19〉³⁸⁾는 수저를 보관했던 색실누비 수저집으로 적, 청, 초록 등의 색실로 기하학무늬로 누벼졌다. 〈Fig. 21〉, 〈Fig. 22〉는 색실누비 안경집으로 자

〈Fig. 10〉 Ssamzie
- *The beauty of Korea*,
p. 84

〈Fig. 11〉 Ssamzie
- *The Fragrance of a Woman*, p. 161

〈Fig. 12〉 Ssamzie, 19C
- *Pouches for Storing Luck, Ju-meo-ni & Ssamzie*, p. 120

〈Fig. 13〉 Ssamzie, 19C
- *Pouches for Storing Luck, Ju-meo-ni & Ssamzie*, p. 128

〈Fig. 14〉 Ssamzie
- *The Old of the underwear and sewing*, p. 143

〈Fig. 15〉 Ssamzie
- <http://www.nfm.go.kr>

〈Fig. 16〉 Ssamzie, 19C
- *Pouches for Storing Luck, Ju-meo-ni & Ssamzie*, p. 63

〈Fig. 17〉 Ssamzie, 19C
- *Pouches for Storing Luck, Ju-meo-ni & Ssamzie*, p. 126

〈Fig. 18〉 Ssamzie
- *Korean Costume 2000 years*, p. 167

〈Fig. 19〉 Spoon Case
- *Quilting craftsman*, p. 54

〈Fig. 20〉 Socks pattern Case, 20C
- *The Old and New*, p. 20

〈Fig. 21〉
Glasses Case
- *Korean Costume*
2000 years, p. 363

〈Fig. 22〉
Glasses Case, 20c
- *The Old and New*,
p. 12

〈Fig. 23〉
Pin Cushion
- *The Fragrance of a*
Woman, p. 71

〈Fig. 24〉 Pin Cushion
- *Natural dyeing & Kyubang crafts*,
p. 115

〈Fig. 25〉 Thimble
- *Spool · 絲霸*, p. 158

〈Fig. 26〉 Thimble
- *Spool · 絲霸*, p. 158

〈Fig. 27〉 Bonnet
- *Quilting craftsman*, p.
107

〈Fig. 28〉 Bonnet
- *Headgears of the Choson Dynasty*,
p. 48

주, 노랑, 청, 분홍 색실로 +, * 형태로 누벼졌다.

〈Fig. 23〉, 〈Fig. 24〉³⁹⁾는 색실누비 바늘꽃이로 자주, 분홍, 청색, 노랑 등으로 + 형태로 누볐다. 〈Fig. 20〉은 버선본을 접어 보관했던 버선본집으로 네 개의 모서리 부분을 가운데 중심을 향해 접어 사각형으로 마무리된 형태로 보라, 연두, 노랑, 청색, 미색의 실로 누볐다. 〈Fig. 25〉⁴⁰⁾, 〈Fig. 26〉은 색실누비 골무로 분홍 색실 단색으로만 누벼졌다. 또한 〈Fig. 27〉, 〈Fig. 28〉⁴¹⁾은 아얌으로 모피 윗부분에 가는 한지 끈을 넣어 검정 색실로만 누빈 것을 볼 수 있다.

색실누비 유물에서 보이는 바탕천으로는 주로 무명과 명주, 단을 사용했으며, 색실로는 명주실, 면실

등을 사용했다.

2) 색실누비 기법

색실누비는 여러 가지 색상의 색실 〈Fig. 1〉⁴²⁾, 〈Fig. 2〉⁴³⁾, 〈Fig. 3〉⁴⁴⁾, 〈Fig. 6-24〉 또는 단색의 실〈Fig. 4〉, 〈Fig. 5〉, 〈Fig. 25-28〉을 번갈아 가며 사용 하여 누빈 것으로, -, □, +, ×, * 형을 기본 선으로 하여 기하학적인 형태를 반복무늬로 누비 장식함으로서 누비의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준다.

이때 천과 천 사이에는 한지를 꼬아 넣거나 면 끈을 넣고 색실을 이용하여 온박음질로 누빈다. 이러한 색실누비 기법은 주로 생활소품에 많이 쓰였는데 각

〈Fig. 29〉 Twist Han-Ji
- photographed by Researcher

〈Fig. 30〉 Twist Han-Ji
- photographed by Researcher

〈Fig. 31〉 Han-Ji string
- photographed by Researcher

〈Fig. 32〉 backstitch
- photographed by Researcher

〈Fig. 33〉 Put hanji-string into the
clothes and Quilting (Back)
- photographed by Researcher

〈Fig. 34〉 The Shape of quilting
included Hanji String (Shape ×)
- photographed by Researcher

〈Fig. 35〉 Backstitch
- photographed by Researcher

〈Fig. 36〉 Put hanji-string into the
clothes and Quilting (Shape +)
- photographed by Researcher

〈Fig. 37〉 Put hanji-string into the
clothes and Quilting (Shape ×)
- photographed by Researcher

종 싹지(Fig. 1-18)와 수저집(Fig. 19), 버선본집(Fig. 20)⁴⁵⁾, 안경집(Fig. 21-22), 바늘꽃이(Fig. 23-24), 골무(Fig. 25-26), 아얌(Fig. 27-28) 등에서 볼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유물에 나타난 색실누비 기법을 따라 한지를 꼬아 색실누비 기법을 재현해보았다.

먼저 한지는 2cm 너비로 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자르며, 이때 필요로 하는 한지 끈의 두께에 따라 한지 너비는 조절한다. 아래 〈Fig. 29〉, 〈Fig. 30〉과 같이 한지의 끝을 엄지와 검지로 잡고 밀어가며 한지를 꼬아 준다. 한지를 다 꼬은 후에는 약간의 물품을 발라 꼬아 놓은 한지가 풀어지지 않도록 고정시켜 한지끈을 만든다.〈Fig. 31〉 이때 풀을 너무 많이 바르면 한지가 딱딱해져 누빌 때 불편하며, 누비를 해

놓았을 때 바느질선이 예쁘지 않다.

누비 방법은 <Fig. 32>, <Fig. 35>와 같이 천에 기본 도안선을 그리고 선을 따라 박음질 하여 겹감과 안감을 고정한 후, <Fig. 33>과 같이 박음질 선을 따라 겹감과 안감 사이에 한지 끈을 넣고 엄지 손가락으로 한지끈을 밀어가며 색실을 이용하여 박음질 해 나가면, 울룩불룩한 꼴을 이루며 누비 진다. 본 연구에서는 겹감은 명주로, 안감은 한지 끈이 잘 보이도록 비치는 노방을 사용하였다.

바느질 방법으로는 <Fig. 34>, <Fig. 37>과 같이 온박음질을 사용하며 골과 골의 간격이 2mm, 바늘땀은 1.5mm를 넘지 않을 정도로 촘촘하고 정교하게 바느질 했으며, 실은 명주실을 사용하였다.

한지끈을 넣어가며 색실누비를 재현 해본 결과, 겹감이 한지를 감싸며 누비지기 때문에 겹감은 완성치수보다 여유있게 마름질 해야 했다. 또한 곡선부분을 바느질 할때는 바늘땀을 더 작게 해야 곡선이 예쁘게 나타나며, 안에 넣은 한지끈이 박음질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왼손 엄지 손가락으로 밀어 가며 바느질 했다.

<Fig. 34>은 *형태를 기본선으로 하여 한지끈을 넣어 가며 누볐다. 누비면서 곡선이 만들어졌으며 누비형태가 꽃모양을 이루었다. <Fig. 37>은 x형태를 기본선으로 하여 직선 형태로 누볐다. 곡선 형태로 누비는 것은 직선 형태로 누비는 것보다 훨씬 손이 많이 가고 까다로웠다. 또한 *,+ 형태를 기본선으로 하여 누빌때는 한지끈을 중심선의 안쪽까지 밀어 넣어야 하기 때문에 끝이 무딘 도구가 필요하였다. 누비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한지 끈을 넣고 한줄씩 누비를 할 때 마다 생겨나는 바느질땀은 장식적이고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났다.

III. 전통 색실누비 기법의 현대적 활용

1. 디자인

유물에서 보이는 색실누비 기법은 주로 생활소품

<Fig. 38> Basic line backstitch
- photographed by Researcher

<Fig. 39> Quilting
- photographed by Researcher

<Fig. 40> Quilting
- photographed by Researcher

<Fig.41> Colored cord quilting
- photographed by Researcher

<Fig. 42> Colored cord quilting
- photographed by Researcher

<Fig. 43> Colored cord quilting
- photographed by Researcher

<Table 1> Works by Using Traditional Colored Thread Quilting Technique

Item	Works	Detail	Material, Technique, Size
Baeja (Vest) I			silk, colored thread Han-Ji string, fur backstitch, quilting 48×33cm
Baeja (Vest) II			silk, colored thread cord, fur backstitch, quilting 48×36cm
Baeja (Vest) III			silk, colored thread Han-Ji string, fur backstitch, quilting 48×33cm
Baeja (Vest) IV			silk, colored thread cord, fur backstitch, quilting 48×33cm

에 사용했던 기법이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색실누비 기법을 이용한 패션소품을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생

<Table 2> Works by Using Traditional Colored Thread Quilting Technique

Item	Works	Detail	Material, Technique, Size
Pendant I			silk, colored thread cord, backstitch, quilting 7.5×4cm
Pendant II			silk, colored thread Han-Ji string, backstitch, quilting 9×4cm
Brooch I			silk (no-bang), colored thread colored cord, backstitch, quilting 6.5×5.7cm
Brooch II			silk (no-bang), colored thread colored cord, backstitch, quilting 7×5cm
Brooch III			cotton, colored thread Han-Ji string backstitch, quilting 6.3×4.7cm
Brooch IV			cotton, colored thread cord, backstitch, quilting 6.7×5cm

활속에서 착용할수 있는 배자와 장신구(펜던트와 브로치)를 디자인 하였다.

누비 형태는 색실누비 유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 □, +, ×, * 형태를 기본선으로 하여 직선, 사선, 곡선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기하학무늬로 누비, 색실누비의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주었다.

2. 재료 및 기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재로는 명주, 광목, 노방, 명주실, 한지 끈, 끈목, 양털, 토끼털을 사용하였다. 누비 방법은 전통 한지 끈을 넣고 누비는 방법과 한지 꼬기의 수고로움을 덜고 시중에서 쉽게 구입 할 수 있는 끈목을 넣어 누비는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하였다.

1) 한지 끈 넣어 누비기

〈Fig. 32-37〉에서와 같이 한지를 꼬아 한지 끈을 넣고 온박음질을 사용하여 누비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2) 끈목 넣어 누비기

〈Fig. 38-43〉과 같이 끈목을 넣어 온박음질을 사용하여 누비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Fig. 38~ Fig. 40〉은 겹감으로 명주, 안감은 광목을 사용하여 끈목을 넣고 누웠으며, 〈Fig. 41-43〉은 겹감으로 노방을 사용하고 색 끈목을 사용하여 끈목이 비치는 효과를 응용하였다. 안감은 광목을 사용하였다.

3. 색실누비기법을 활용한 작품제작

색실누비 기법을 활용하여 개발된 아이템으로는 〈Table 1〉, 〈Table 2〉와 같이 현대 생활속에서 활용도 높은 배자 4점과 장신구(펜던트와 브로치) 6점, 총 10여점을 개발 제작하였다.

IV.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통 색실누비의 종류와 쓰임새, 형태, 제작기법들을 고찰하여, 실제로 전통색실누비

를 재현해보고, 색실누비기법을 활용하여 현대생활에 활용 할 수 있는 패션소품을 제작하여 한국 색실누비기법의 계승과 활용 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한국 전통누비는 누비의 형태 및 간격, 누비 실의 색상, 누비 땀의 간격들을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나타내주었는데, 특히 썸지, 안경집, 수저집, 버선본집, 아얀 등은 실용적 목적 이외에 누비를 이용하여 장식성을 강조한 것을 볼수 있었다.

현재 가장 많이 전하는 색실누비 유물은 각종 썸지들로 한지 끈을 넣어 촘촘하고 골 지게 누비 정성스러운 바느질과 개성 있는 문양을 나타냈으며, 견고하고 유용하게 사용하였다. 색실누비 유물에 나타난 누비의 형태는 -, □, +, ×, * 형태를 기본선으로 하여 직선, 사선, 곡선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기하학적인 무늬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바탕천으로는 주로 무명과 명주, 단을 사용했으며, 색실로는 명주실, 면실 등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지를 꼬아 한지 끈을 이용하여 색실누비 기법을 재현해보았다. 그 결과 겹감이 한지를 감싸며 누벼지기 때문에 겹감은 완성치수보다 여유있게 마름질 해야 했고, 곡선부분을 바느질 할 때는 바늘땀을 더 작게 해야 곡선이 예쁘게 나타났다. 안에 넣은 한지 끈은 박음질선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왼손 엄지 손가락으로 밀어 가며 바느질 했고, *, + 형태를 기본선으로 하여 누빌때는 한지 끈을 중심선의 안쪽까지 밀어 넣어야 했기 때문에 끝이 무딘 도구가 필요했다. 누비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한지 끈을 넣고 한 줄씩 누비를 할 때 마다 생겨나는 바느질 땀은 장식적이고 시각적인 효과가 뛰어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색실누비 기법을 이용한 패션소품을 아이템으로 선정하여 생활속에서 착용할수 있는 배자와 장신구(목걸이와 브로치) 등 패션소품 10여점을 개발, 제작하였다. 소재로는 명주, 광목, 노방, 명주실, 한지 끈, 끈목, 양털, 토끼털을 사용하였다. 누비 방법은 전통 한지 끈을 넣고 누비는 방법과, 한지 꼬기의 수고로움을 덜고 시중에서 쉽게 구입 할 수 있는 끈목을 넣어 누비는 방법 두 가지를 사용하였는데, 끈목을 넣고 누비는 것이 한지 끈을 넣고 누비는 것 보다 쉽게 누빌 수 있었으며 완성했을

때 누비 효과는 같았다. 누비 형태는 색실누비 유물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직선, 사선, 곡선 등의 반복으로 이루어지는 기하학적 무늬로 색실누비의 시각적인 효과를 높여주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통 색실누비의 독창적인 기법과 미적 가치가 현대 생활에서 활용 될 수 있는 다양한 아이টে으로 개발되어 계승, 발전되길 바란다.

Reference

- 1) Lee, H. (1987), *The standard Korean dictionary*, Seoul: Minjung Seorim, p. 411.
- 2) Park, S. (1990), A Study of the quilting, *JKSC*, 14, p. 41.
- 3) Lee, J. (2002), A Study on Traditional Quilting of Korean, *The Journal of Asian Ethno-Forms and Culture*, 1(3), p. 125.
- 4) Hong, M., & Nam, Y. (2000). A Study on Traditional Quilting: The Focus of Korea and Japan, *JKSC*, 50(1), p. 166.
- 5) Kim, Y. (1988), *Dictionary of Korean Dress culture*, Seoul: Misul Munhwa, p. 113.
- 6) Lee, G. (2006), A Study on the Dented Quilt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The Graduate School of Dankook University Master's thesis, p. 7.
- 7) Kim, H., & Yu, S. (2010), *Nubi*, Seoul: Misinsa, p. 12.
- 8) Yu, H. (1975), *A Study on History of Korean Costume*, Ewha Womans Univ. Press, p. 44.
- 9)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1987), *Koean Traditional Amor*, p. 15.
- 10) Saeksilnubi of Yoon-Sun Kim (2012), Seoul: Dahong Chima, p. 31.
- 11) Lee, J., *op. cit.*, p. 127.
- 12) Shin, I., Kim, G., & Kim, J. (1974). *Yeokeoryuhae*(譯語類解). Seoul: Asea Munhwasa, pp. 154-155, p. 355.
- 13) Kim, Y. (1987), *A Study of the custom of Royal court in the early years of the Chosun Dynasty*, Seoul: Iljisa, pp. 382-420.
- 14) Park, S., *op. cit.*, p. 47.
- 15) Lee, J., *op. cit.*, pp. 128-131.
- 16) Hong, M., & Nam, Y., *op. cit.*, p. 168.
- 17) Choi, I. (1988), A Study on the Hand-Nubi, The Graduate School of Sook-Myung Women's University Master's thesis, pp. 13-14.
- 18) Park, S., *op. cit.*, p. 84.
- 19) Hong, M., & Nam, Y., *op. cit.*, p. 168.
- 20) Lee, H., *op. cit.*, p. 1982.
- 21) Huh, D. (1997), *Our Kyubang culture*, Seoul: Hyun Amsa, p. 297.
- 22) Lee, J., *op. cit.*, p. 130.
- 23) Choi, I., *op. cit.*, p. 13.
- 24) Hong, M., & Nam, Y., *op. cit.*, p. 168.
- 25) Lee, E., Cho, H., & Ha, M. (2005), *The Story of dress of the military officer in the seventeenth century*, Seoul: Minsokwon, p. 50.
- 26) Lee G., *op. cit.*, p. 20.
- 27) Lee, E., Cho, H., & Ha, M., *op. cit.*, p. 209.
- 28) Dong-wha Huh, *op. cit.*, p. 322.
- 29) Ju-won Lee, *op. cit.*, p. 130.
- 30) In-gun Choi, *op. cit.*, p. 14.
- 31) *Saeksilnubi of Yoon-Sun Kim*, p. 39.
- 32) Retrieved 2014. 11.30, http://www.nfm.go.kr/Data/collection/view.jsp?SEL_SEQ=25533&LEVEL=S&LEVEL1=&LEVEL2=&LEVEL3=&NA1=&NA2=&curPage=2
- 33) *The beauty of Korea* (1988), Seoul: National Museum of Korea, p. 84.
- 34) *Saeksilnubi of Yoon-Sun Kim*, pp. 37-39.
- 35) *The Fragrance of a Woman* (2007), On Yang: On Yang Folk museum, p. 161.
- 36) *The Old of the underwear and sewing* (2006), Seoul: kyungwoon Museum, p. 143.
- 37) *Korean Costume 2000 years* (1995), Seoul: The National Folk Museum, p. 363.
- 38)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2008), *Quilting craftsman*, Seoul: Minsokwon, p. 54.
- 39) Kim, J., & Lee, M. (2005), *Natural dyeing & Kyubang crafts*, Daejeon: Hannam Univ. Press, p. 115.
- 40) Spool·絲綳 (2008), Seoul: The Museum of Korean Embroidery, p. 158.
- 41) *Headgears of the Choson Dynasty* (1988), On Yang: On-Yang Folk museum, p. 48.
- 42) Huh, D., *op. cit.*, p. 312.
- 43) *Pouches for Storing Luck, Ju-meo-ni & Ssamzie*, (2010), Seoul: The Museum of Korean Embroidery, p. 120.
- 44) *Old pouches of Korea* (2001), Seoul: Ewha Womans Univ. Press, p. 167.
- 45) *The Old and New* (2013), Seoul: Suhyeon Munhwa, p. 20.